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광주진료소 첫 진료 동행취재



광주 의료진들이 20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과 진료를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4일간 1000여명 '광주 인술' 혜택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 최권일 기자

캄보디아 현지에 문을 연 광주진료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첫 진료를 시작하면서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광주 정신'전파와 함께 '광주 인술(仁術)'을 심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캄보디아 한국 건설업체인 강화E&C(법인장 김희수)에 의해 지난해 12월 준공됐지만, 각종 의료장비 설치 등으로 인해 6개월 뒤인 이날부터 광주 의료진들의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캄퐁스퓨 주(州)에 세워진 광주진료소는 250㎡에 진료실 4개와 방사선실 및 수술실·회복실, 약국 각 1개씩이 마련됐다.

이 곳에는 광주 의료계가 기증한 초음파(시광병원), 치과 체어(미르치과), 세극등 현미경(아이안과) 등 첨단 의료장비가 설치됐고,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한 X-레이 장비와 이비인후과 석션 장비를 갖췄다. 조선대병원과 광주시약사회는 3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이로써 광주진료소는 캄보디아 캄퐁스퓨 주 내에서 명실상부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의료진들이 2개월에 한 번씩 광주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게 돼 인술을 통한 '한류 열풍'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진료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4일 동안 인근 지역에서 1000여명의 환자

광주시 의사회 등 의약 5단체 안과·치과 등 의료 나눔

현지 의사·간호사 1명씩 상주...광주의료진 격월 진료

가 광주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 선교사들도 광주진료소 개원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들을 수십 명씩 데려와 '광주 인술'을 경험하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광주진료소 첫 진료에는 광주시 의사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가 모두 참여하면서 나눔과 봉사, 연대의 '광주 정신'을 캄보디아에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임동훈(비뇨기과) 대외협력실장, 오명근(내과) 교수, 김미라 간호사 등 3명이 처음으로 참여해 내과 진료를, 미르치과에서는 박석인 원장과 조민경 부원장 등이 치과진료를 맡았다.

서정성 전 아이안과 원장과 VCS(비전케어서비스) 소속 문산제일안과 임동권 원장, 한예원 간호사 팀은 수술장비 등을 직접 가져와 진료 기간 동안 6명의 백내장 환자 수술을 마쳐 지역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아이퍼스트 전성현 원장·최영순 간호사는 가장 많은 소아환자들을 진료했고 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은 직접 약 조제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 주민들은 처음 보는 청년한방방원 이상영 원장의 한방 진료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의료진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희망나무 정승욱 대표 등 자원봉사자 5명도 참여해 의료진을 거들었고, 수많은 소아환자들을 위한 풍선 나눠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며 캄보디아에 '광주 희망'을 심었다.

캄보디아 단 보위 행 보건부장관은 광주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시민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광주진료소는 캄퐁스퓨주의 최고 의료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 특히 광주 의료진들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진료소는 평소에는 현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상주하지만 광주 등 한국 의료진이 2개월에 한 차례씩 진료소를 정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광주진료소는 '광주 인술' 전파뿐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소식을 친정에 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다문화 시대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와 인권도시 '광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진료소 건립에는 주관단체인 (사)희망나무를 비롯해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지역 의약 5단체, 광주일보가 참여했다. /cki@kwangju.co.kr

전남 '최고'·광주 '최저'...극과극 출산율

호남 통계청 '통계로 본 호남·제주 건강실태' 발표

17개 시·도...전남 1.642명 1위·광주 1.295명 16위

전국에서 전남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은 지난 20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초로 인구동태,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주요 질환 의사 진단 경험률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건강실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2012년 기준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64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주(1.598명), 세종시(1.597명) 순이었다.

출산율 최저는 대구(1.217명)가 기록했으며 광주(1.295명)가 뒤를 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해남(2.470명)이 가장 높았고, 영암(2.184), 함평(2.101) 순이었다. 순천(1.343명)이 가장 낮았다.

광주에서는 5개 구 가운데 광산구(1.613명)가 가장 높았고 남구(1.211명)가 가장 낮았다.

한편 2013년 기준 흡연율의 경우 전남(22.2% 15위), 광주(22.5% 14위)가 모두 다른 시도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월 1회 이상 음주를 기준으로 한 음주율(2013년 기준)은 전남이 5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59.5%)는 10위권을 보였다.

흡연·음주를 전국 최고는 제주(26.0%)와 부산(63.5%)이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비만율(2013년 기준)은 광주가

■합계출산율 (단위:가임여성 1명당 명)

시·도	2008	2012	시·도	2008	2012
전국	1.192	1.297	경기	1.285	1.355
서울	1.010	1.059	강원	1.253	1.374
부산	0.980	1.135	충북	1.319	1.485
대구	1.072	1.217	충남	1.444	1.571
인천	1.186	1.301	전북	1.305	1.440
광주	1.198	1.295	전남	1.449	1.642
대전	1.215	1.315	경북	1.313	1.489
울산	1.338	1.481	경남	1.368	1.503
세종	-	1.597	제주	1.386	1.598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0위권(23.3%), 전남이 13위권(23.0%)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았다.

최근 1년간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경험을 묻는 우울감 경험률(2013년 기준)의 경우 광주(14위)·전남(15위) 모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조사돼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울감 경험률 최고치는 인천(7.5%)이 기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남에 전국 최초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139개 마을기업 생산품 판매·판매 등 전담

1억5천 투입...순천 정월박람회장에 '판매장'

전남도가 도내 139개 마을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이 마을기업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도내 마을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 및 판촉을 전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안전행정부가 마을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생산제품의 판매를 전담할 유통형 마을기업을 전남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에 따라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전남도 마을기업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연간 300만명이 관람객이 찾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판매장을 건립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 개설과 대도시권 대형마트 입점 등을 추진해 도내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전담한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해 지난해까지 전남형 마을기업 45개 등 139개의 마

을기업을 육성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마을기업 특성상 열악한 수요자와 판매망 부재로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을기업 제품 판매를 전담할 유통기업의 필요성이 시급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모델로, 도내 마을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고용을 창출해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 34개 마을기업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한산성, 한국 11번째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22일(한국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계속된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국이 신청한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했다고 문화재청이 이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한꺼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 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산·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

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을 거쳐 남한산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됐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4건을 헤아린다.

남한산성은 동아시아에서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로서의 군사유산이면서,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기술의 시대별 추이가 결집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라는 점 등이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문화재청



은 덧붙였다. 포곡식이란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산성을 말한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점일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문의처: 062-233-996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1-1

NAVER **단비플라워** 농거래

단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추천** 특별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